

서울대 사람들

SNU
MAGAZINE

AUTUMN
2018

VOL. 54



커버스토리

故 최인훈 작가

법학과 52학번

2016 명예졸업

생 각

01 **서울대와 함께한 글로벌 인재로의 여정**
박성태 경제학부 졸업

03 **극지 생태계가 우리에게 보내온 경고**
정수중 환경대학원 교수

04 **변화하는 시대, 서울대학교에
필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대별 구성원의 생각



06 **치열한 성찰의 길을 걸었던 작가
故 최인훈을 기억하며**
김병익 평론가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 통

10



뚜렷한 원칙, 일생을 바치는 연구
약학과
이호영 교수

12



누구나 법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학과 01학번
박효연 동문

14



창업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
Airound

16



캠퍼스 구석구석 땀방울을 흘리다
배순만 선임주무관(위생반)
정명환 주무관(방호반)
신동구 담당관(청원경찰반)

소 식

18

**앱과 함께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
편리한 학교 생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개

20

**방방곡곡
찾아가는 서울대학교**
파주 창의예술 아카데미 외
지역사회 공헌 활동

22

**열정 가득, 모두가
함께 만든 예술의 날**
문화예술 행사 소식

24

**교육과
경제적 합리성**
최승주 경제학부 교수

25

단신 뉴스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3人 外

나 눔

28

**가치 있는 나눔의
발자취를 느끼다**
캠퍼스 기부 로드

30

**먼 길을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노재정, 노재신
'고주 노용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장학기금' 출연

32

**주변을 밝히는
건강한 에너지, 기부**
장학금 기부 및
수혜자 3人

34

**발전기금 행사 ·
협약식 소식**
제2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개최 外

35

**SNU Honor Club
SNU Sponsor**
고객 기부자 및
2018.06.~2018.08.
출연 · 약정 명단

서울대와 함께한

글로벌 인재로의 여정

국제협력과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했을 때, 동료였던 외국인 근로장학생 친구에게 번역 업무에 관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Very very thank you.”라고 말하자 그런 문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Thank you very much.”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10년이 넘게 해온 영어공부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책으로 공부하며 암기한 문장들은 머릿속을 떠돌아다닐 뿐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고, 캠퍼스에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을 볼 때면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가 추구해온 변화와 함께 용기를 냈습니다. 서울대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800여 기관과 교환학생 교류 협정을 맺고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중이라는 것과, 매 학기 일부 학생들에게 해외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이지만 네덜란드에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도전은 계속되어 외국인 교환학생들과의 교류 동아리 스누 버디(SNU Buddy)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다가왔고, 해당 학기의 베스트 버디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가히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도 ‘SNU in Washington’에 참여해 국제 정치 중심지를 경험하고,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등 서울대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평생 가볼 수 없었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나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 방문해 더 넓은 세상의 존재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영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돌이켜보면 영어 문장 하나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던 제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게 된 것은 참으로 큰 행운입니다. 서울대학교와 함께하지 않았다더라면 글로벌 인재에 가까워지기 위한 경험들은 하지 못했으리란 생각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서울대, 정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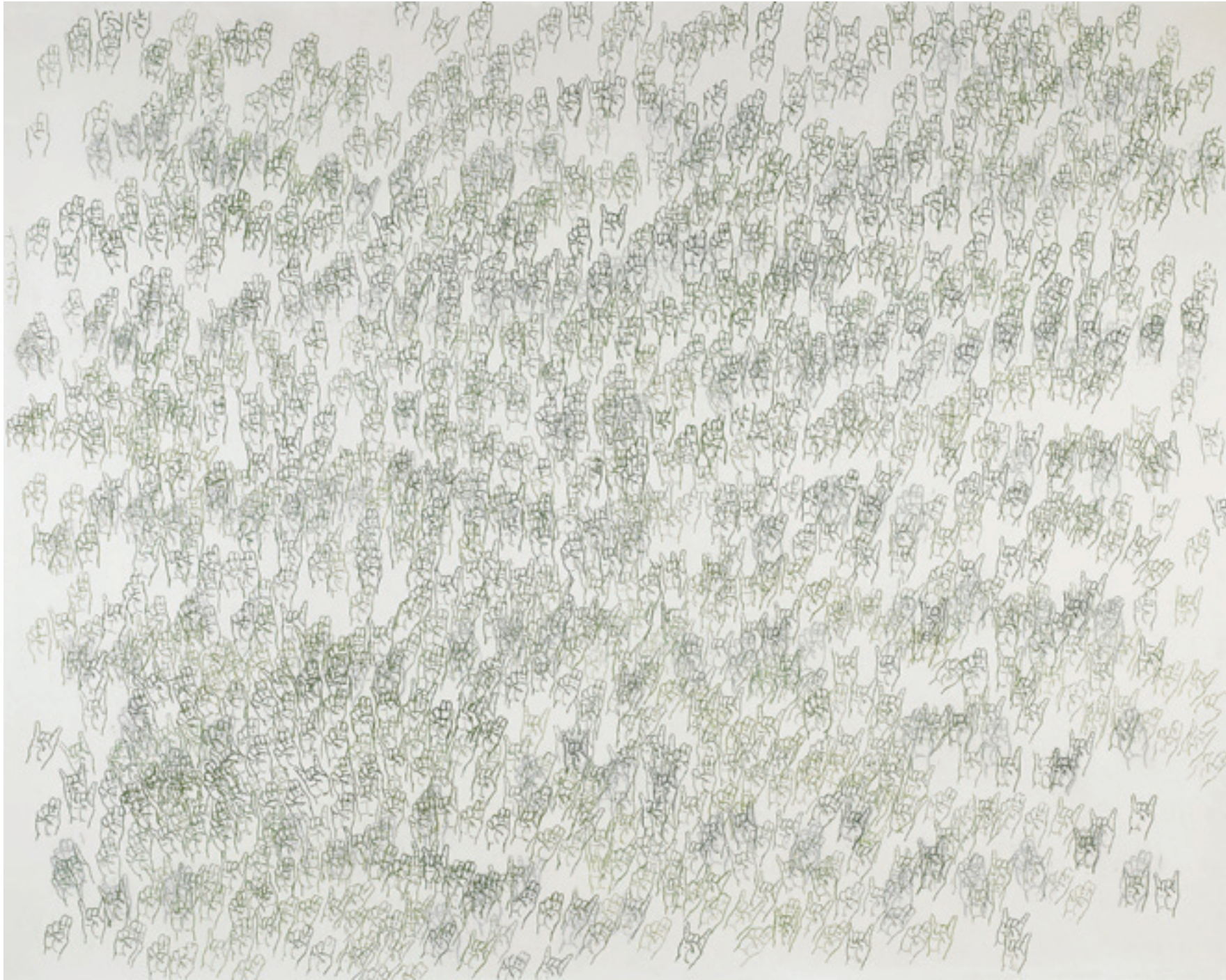
박성태 · 경제학부 졸업, 제72회 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 대표 연설

서울대사람들 2018년 가을호 (2018년 11월)

발행인 박찬욱 교육부총장 **편집인** 이효원 기획처장 **자문위원** 한규섭(협력부처장, 언론정보학과), 강규석(산림과학부), 강준호(체육교육과), 김경선(디자인학부), 김재영(건설환경공학부), 박철기(의학과), 이광근(컴퓨터공학부), 홍석경(언론정보학과)

제작 서울대학교 홍보팀(snu2@snu.ac.kr) **기획 및 취재** 정민호 · 박소영(홍보팀), 송미정(건축학과), 주예진(인류학과), 이수현(경영학과)

편집 및 디자인 홍디자인 02.6916.4400 **사진** 김창제, 유아라



윤기연(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박사과정 졸업), 멤멤멤 III, 2016

극지 생태계가 우리에게 보내온 경고

정 수 종 교수

환경대학원

2010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8년 만에 서울대학교로 돌아오기 전, 중국 남쪽 아열대 기후 지역의 대도시 심천에서 2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심천에서의 여름은 너무 더웠고 힘들었다.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더위와 습도에 여름 동안 건물 밖을 나가지 않으려 애썼던 기억이 난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제 지긋지긋한 더위와는 이별이라 생각했건만 2018년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을 경험했다. 서울이 위치한 중위도 지역을 강타한 폭염은 여러 기상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제시되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의 기온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폭염과 같은 악기상의 강도 및 빈도에 변화를 불러왔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산화탄소이다.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이 발생시킨 탄소 배출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인간이 화석 연료 사용 또는 별목으로 방출하는 탄소의 24% 정도는 바다가 흡수하고 26% 정도는 육상 생태계(산림, 초지, 농경지, 동토 등), 나머지 50% 정도가 대기 중에 남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즉 인간이 배출하는 절대적 양도 중요하지만 지구 시스템 내부의 식생이나 바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현재 뜨거운 감자는 육상 생태계의 탄소 흡

수 능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다. 현재는 26% 정도를 흡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수치가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극지역동토층에 매장된 탄소의 변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극지역동토층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탄소가 묻혀 있어서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증가와 이에 동반한 기후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연구실은 북극권에 있는 미국 알래스카 육지 최북단에서 관측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여 동토층에서 빠져나오는 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즉 지금은 동토 지역 생태계가 탄소 흡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탄소 배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온 것이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 특히 극지역의 온난화를 유발했다. 이러한 극지의 온화는 동토를 녹게 하여 얼어있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추가적인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강하고 오래 지속하는 강력한 폭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정말로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변화하는 시대, 서울대학교에 필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새로운 시대는 사고의 전환과
변화에 한 발 더 앞서가는
과감한 도전을 요구한다.
서울대 사람들에게 지금
서울대학교가 갖춰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물었다.



20대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서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
다. 여러 목표에 도전해볼 수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은 의도하
지 않으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
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포용성 있는 태도
가 필요합니다.

박가영 역사교육과 15학번, 2018년도 관악봉사상 수상자

30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개발도상국의 능력 있는 인재가 자신의 관
심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플랫폼
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가 구축되
어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모국의 국익에 중점을 둔 연구
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
은 전 세계에서 서울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TANVIR AHMED 지구환경과학부, SPF 장학금 수혜 학생

*SPF(SNU President Fellowship):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 등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장학금 제도.

40대

“세계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유익한 시도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탁월함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유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는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불확실하고 급진적, 전방위적, 심층적일
것이라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세계의 미래에 지금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예측하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학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
가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앞날이 어두워 보일 때
일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해주는 대학교
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지현 재정전략실 예산과장



60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도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버
팀목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국가와 인류가 직면한 문제
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의적 지식 창조’와 ‘도전 정신으
로 무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로서, 그리고 따듯
한 마음을 가진 지성인을 배출함으로써 서울대학교는 질
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으로 발
전할 수 있습니다.

서진호 농생명공학부 교수



치 열 한 성 찰 의 길 을
끝 없 이 걸 었 던 작 가

故 최 인 훈 을 기 억 하 며

지난 7월 23일,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던 최인훈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누구보다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던 그를 추억하며,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작가의 오랜 벗이자 동료였던 김병익 문학평론가를 만나 질문을 던졌다.

故 최인훈 작가는 1952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으나 분단된 현실에 혼란을 느끼며 중퇴하고,
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은 『광장』, 『총독의 소리』, 『태풍』 등을 집필했다. 서울대는 문학작품을 통해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2016년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



김병익 평론가님은 최인훈 선생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60년대 중반에 신문 기자로 문학을 담당하면서 문인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작가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하며 작품을 발표하시던 최인훈 선생님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후 신문사에서 물려나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했을 때 최인훈 전집을 처음 기획했지요. 광장을 시작으로 열두 권짜리 최인훈 전집을 기획하면서 편집자이자 발행인으로서 4~5년간 한 달에도 몇 번씩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서울예술대학 교수로 계셨을 때, 저도 시간강사로 같은 학교에서 일하게 되어서 동료 선배로서 매주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집도 근처여서 퇴근을 같이한 적도 많았죠. 이렇게 세 번의 큰 만남이 인연이 되어 30여 년간 이어졌네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지켜봐 왔지만 정말 철저한 사회인이자 작가, 독서인이셨습니다.

문학과지성사에서 최인훈 전집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인훈 선생님이 미국 아이오와 국제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가족들도 미국에 있다 보니 계속 거기서 지내시더라고요. 영영 안 오실까 봐 걱정을 하던 참이었는데 3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광장』의 문체를 모두 한글로 바꿔서요. 미국에 계시는 동안 그 일 한 가지만 하셨대요. 외국에 나가 모국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글을 수정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모국어로 관념적인 사유를 시작한 첫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다른 출판사에서 『광장』 구판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문학과지성사에서 새롭게 책을 내게 됐죠. 그런 김에 최인훈 전집을 구성하게 됐고요.

결에서 지켜본 최인훈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조용하고 참 논리적인 분이셨습니다. 말씀하신 걸 녹음해서 그대로 받아쓰면 문장이 될 정도로 말을 분명하면서 정연하게 하셨어요. 유머도 있으셨지만 전반적으로 진지하셨고, 항상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허튼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과장하거나 비약하지도

않고 늘 자기 사유를 침착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 엄격하다 보니 상당히 신중하셨어요. 일부러 본인을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드러내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모두들 저절로 그분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최인훈 선생님의 작품을 접하셨을 때 인상이 어떠셨나요.

선생님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서로 알지 못했던 시기, 당시에도 꽤 화제에 올랐던 작품인 『광장』을 읽었습니다. 당시 문인 친구들이 많았지만 제가 직접 문단에 들어가거나 문학 속에 끼어들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저 순수한 독자로 작품을 처음 읽었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문학청년다운 야심찬 작품이지만 어딘가 아직 좀 미숙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이후 제가 신문에 입사하고 문학을 담당하게 됐을 때 최 선생님이 『충독의 소리』를 발표하셨습니다. 소설이지만 주인공도 없고 서사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대조선 민족에 대해 방송하는 내용이었던데요. 당시에 너무 특이해서 선생님께 이것도 소설이라 할 수 있느냐 여쭙봤었죠. 그랬더니 ‘소설은 소설가가 소설이라 부를 때 소설이 된다. 정형시처럼 엄수해야 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니 무엇이든 괜찮지 않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등장하는 인물은 없지만 시대를 그려놓고 나면 인물에 대해서는 독자가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요. 상당히 재미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발상이었죠. 소설이라는 개념 자체를 기존의 상식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분이었어요.



최인훈 선생님의 문학적 특성이나 문제의식이 당대 문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최인훈 선생님은 4·19를 사이에 둔 구세대와 이후 신세대 사이에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독창적인 생각이 4·19 이전의 문학을 근대 혹은 현대 문학으로 비약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전은 리얼리즘까지는 아니어도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문학의 정석이었는데, 최인훈 선생님 이후부터 경험한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소설 창작 방법이 생겼습니다. 문학을 새로이 전위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의식 역시 남다르셨습니다. 60년대 전후 세대적인 전환에 대해 가장 먼저 인식하시고, 뒤이어 다른 문인들이 합류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를 문학으로 풀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이 저랑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으시지만 저나 이후 세대는 모르는 식민지 시대와 일본어 교육을 겪으셨거든요. 저희와 비슷하지만 앞선 통찰력을 가지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들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고, 문학적인 영향도 많이 받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인훈 선생님과 작품이 가지는 의의가 궁금합니다.

최인훈 선생님은 60년대 중반 우리나라 소설 형태의 변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충독의 소리』처럼 주인공이 없는 에세이 소설을 썼다는 것은 당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죠. 또, 그때는 『크리스마스 캐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작 형식의 작품을 많이 쓰셨는데 연작은 결국 하나의 테마를 놓고 다시 보고 또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사물을 자세히 보고 또 보셨어요. 『광장』이 거듭 개작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죠.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가의 끊임없는 반성, 성찰을 정말 잘 보여준 예죠. 다른 작가들도 마땅히 배워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합하자면 있는 사실을 소재로 하여 언어로 표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문학 해석부터 그걸 어떻게 새롭게 표현하느냐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찾고 시도했던 점에서 최인훈 선생님이 4·19세대의 문학 판도를 새롭게 바꿔놓은 분이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장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평은 작품을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혼교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평이라는 건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을 보고서 이 작품에 내가 무엇에 왜 감동을 받았는가, 이 작품의 의미가 뭔가 하는 느낌에 대해 평가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평가가 작품을 해석하면 작가가 이에 공감하고, 시대적인 의미를 발견해 내야만 한국 문학이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세계에 대한 해석과 평가, 절망과 의미, 구성을 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인훈 선생님의 작품처럼요.



김병익 평론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로 재직하며 1970년 계간 『문학과 지성』 편집동인으로 참여했다. 1975년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해 최인훈 전집을 출간했으며, 문학인장으로 치러진 故 최인훈 작가의 장례식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방민호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문학평론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최인훈 작가의 삶과 문학을 집대성한 연구서 『최인훈-오디세우스의 항해』(에피파니)의 책임 편집을 맡았다.



『최인훈 오디세우스의 항해』

책임 편집 방민호, 에피파니, 2018

24인의 젊은 연구진이 4년간 최인훈의 작품을 분석해 1천 쪽에 달하는 책으로 엮었다. 연보는 작가가 생전에 직접 정리한 것. 단권으로 고인의 삶과 문학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뚜렷한 원칙, 일생을 바치는 연구

암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여성 최초 폐암 부문 종신교수가 된 이호영 교수. 2011년 그는 많은 혜택과 연구 경력을 뒤로하고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왔다. 서울대에서 폐암 연구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한국의 탁월한 여성 과학자로 인정받다

얼굴 가득 머금은 미소와 겸손한 태도. 이호영 교수에게 오랜 세월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해 온 고집스러운 학자의 인상은 드물었다. 폐암과 폐 질환 분야의 내성 기전을 밝히는 연구에 몰입한 지 20여 년, 1995년 미국 텍사스대학교 MD앤더슨 암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폐암과 두정부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그는 2009년 여성 최초로 폐암 부문 종신교수에 올랐다. 하지만 2011년, 한국의 과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모국에서 연구할 것을 제의받았다. 종신교수직과 연금, 좋은 연구시스템을 뒤로하고 결심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언제나 제 삶의 우선순위였던 가족과 함께하며 연구도 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죠. 하지만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요. 이삿짐을 싸는 데만 1년쯤 걸렸고, 연구 자료들은 통관을 기다리다가 대부분 변질돼서 한동안 연구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죠.” 폐암은 연구자가 매우 적은 분야 중 하나다. 세계 남녀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 중 하나지만 여전히 초기 발견이나 치료가 어렵기 때문.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 마크라든지, 환자별로 다른 치료법과 치료제를 어떻게 투여할지 폐기종(폐 공기증)과 폐암 치료 및 예방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20년간 그래왔듯, 지치지 않고 꾸준히

생존율이 낮은 난치병이다 보니 새롭게 연구해 볼 주제도 많았다. 2016년 그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담배의 주요 성분보다도 더욱 빠르게 폐암의 진행을 촉진

한다. 이제껏 각종 암의 원인으로 여겨지던 스트레스와 폐암과의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은 처음이었다. 올 4월에는 예방 제재로써 홍삼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삼에서 신체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연구가 많이 이뤄지는 진세노사이드 외의 성분이 궁금했어요. 파낙시놀이라는 성분이 폐암 세포와 폐암 줄기세포를 차단해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됐죠.”

거대한 연구의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며 연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동력은 그 역시 암으로 가족을 잃었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 대학 시절, 막내딸이던 그를 무척이나 아끼던 아버지가 간암으로 손쓸 틈 없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신 이유를 항상 찾고 싶었어요. 간암을 공부하려 했지만 인연이었는지 폐암과 두정부암 연구팀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해 지금껏 이어오게 됐네요.”

서울대학교에 자리잡은 지 7년째.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 학술진흥상, 3·1문화상 등의 수상자로 연달아 선정되며 주목받고 있는 이 교수. 좋은 연구 결과를 내는 것 외에도 여성과학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 역시 소홀하지 않을 생각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생의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꾸준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을 것이다.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2002년부터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여성 생명과학자에게 수여한 상. 2017년 전 과학 분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수상자는 세계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 후보로 추천된다.

이
호
영

약
학
과

교
수



박 효 연 동 문
법 학 과 0 1 학 번

누구나 법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영화 예매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누구나 필요할 때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법률 사무소 ‘헬프미’를 창업한 박효연 동문. 그는 법률 분야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멋진 혁신가다.

법률 정보 불균형의 해소를 꿈꾸다

“평범하게 살면서 법적 분쟁, 지급 명령, 법인 등기, 상속 등 복잡한 법률문제로 골머리 앓을 일이 자주 있을까요?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업종에서는 서비스가 나쁘면 바로 소문이 나요. 하지만 변호사는 마주칠 일이 적기 때문에 정보도 적고,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기는 더욱더 어렵죠.”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고객을 만났던 박효연 동문은 상담을 할 때마다 사건에 잘 맞는 변호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한탄을 적잖게 들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이야기에 정보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를 법률 부문에도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정보가 평등하게 공유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래밍과 기획을 배워나갔고, 마침내 고객들이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와 소송 후기, 칼럼 등을 통해 변호사를 결정하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헬프미’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 “법률 다툼으로 캄캄한 터널 속에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변호사님이 빛으로 이끌어준 덕분에 그 터널을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고객이 있었어요. 창업한 이후 3년이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인공지능(AI)서비스다. 지급명령과 법인등기, 상속 문제처럼 서류 제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객이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AI가 서류

를 대신 작성해준다. “변호사 업무는 서류 작성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자동화가 보편화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가격도 줄어드니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고요.” 아직까지는 중간중간 팀원들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있다. 완벽한 자동화를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 향후에는 상표 출원이나 개명 신청서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역도 넓혀갈 생각이다. “처음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때만 해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다양한 판례와 법, 학설들로 만들어진 변호사의 머릿속 알고리즘을 컴퓨터로 실현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런 도전이 법률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IT기업 대표라는 직함이 더해지며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각자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모든 팀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낫설었다고. 하지만 이제 스스로없이 사무실 중간에 앉아 일할 정도로 IT 기업에서의 일상이 익숙해졌다는 박효연 동문. 법률 스타트업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될 테지만, 꿈꾸는 미래에 도달할 때까지 혁신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헬프미 이용하기



홈페이지나 앱에서 변호사 프로필, 성공 사례, 상담 후기 등을 보고 사건 특성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한다. 상담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면 대면, 전화, 메신저 등 편한 방식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왼 쪽 부 터

김 동 민	원자핵공학과 17학번
김 건 웅	원자핵공학과 17학번
오 재 원	의예과 13학번
문 승 욱	소비자학과 12학번
김 건 우	원자핵공학과 17학번



창업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

눈부신 아이디어와 과감한 실행력을 갖춘 학생들과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특허 기술이 만났다. 공학, 의학, 소비자학과라는 신선한 조합으로 뭉친 학생 프로젝트 팀 ‘Airound’가 지난 7월 열린 SNU 스타트업 캠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허 기술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의 개발

SNU 스타트업 캠프는 기술적 문제로 창업을 망설이는 예비 창업자나 사업 확장 및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특허 기술 중 7가지를 선별하여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실제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Airound는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한 유연 투명 화학 센서 및 그 제조방법’ 기술을 적용해 휴대전화 공기 질 측정 패치를 개발했다. 사용자 주변의 공기 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해 상고 25m에서 측정된 일반적인 공기 질 정보와는 차별되는 실질 정보를 제공하며,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는 대로 주변 공기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또한, 측정된 정보를 기반으로 IoT를 활용해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등 관련 시장에서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창호와 블라인드 같은 공간 구성 요소까지 IoT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실내 환경 컨트롤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에는 공기 질에 관심 있던 원자공학과 세 명이 팀을 꾸렸는데, 기술적 이해도는 높았지만 실제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여타 사항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이후 의학과 소비자학 전공 팀원들이 합류한 덕에 인체 건강에 대한 염려나 제품의 시장성 검토 등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었죠.”(김건우) 창업 경험 없이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모인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 이룬 값진 결과다.

학생 창업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Airound의 창업 경험 부재는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지만, 팀원들은 오히려 이 점을 수상 이유로 꼽는다. 편향된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BM(Business Model)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업 용어조차 생소했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작하는 IR(Investor Relations) 자료 구성에도 애를 먹었다. 하지만 캠프에 멘토로 참여한 특허기술 발명 연구진과 교내 특허전문가, 기술지주회사 투자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정보를 수집하며 자료를 제작했

다. 창업자로서의 미래에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이었다. “캠프에 참여하면서 학생 창업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오히려 빨리 창업에 도전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문승욱) 이번 캠프는 학교의 보유 기술을 제공한 것은 물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참가자에게 창업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경제적,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 창업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학교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창업의 기회가 돌아갔으면 합니다.”(김동민) Airound 팀원들 역시 이번 경험으로 인생의 청사진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게 됐다. 보다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창업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그들. 방향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넘치는 아이디어로 각자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SNU 스타트업 캠프

지난 7월 5~6일, 창업가정신센터에서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열린 캠프. 총 36명(9개 팀)이 참가했으며 대상팀에는 2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캠퍼스 구석구석 땀방울을 흘리다

이른 새벽, 고요한 학교에서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깔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학교 곳곳에서 힘쓰는 배순만 선임주무관(위생반), 정명환 주무관(방호반), 신동구 담당관(청원경찰반). 하는 일은 모두 다르지만,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똑 닮아 있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쾌적한 학교를 만든다

위생반 배순만 선임주무관은 매일 정해진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행사가 끝난 뒤 나온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 통행로를 치우다 보면 바뀌는 계절을 누구보다도 먼저 몸소 느끼기도 한다. “평평 내리는 눈이나 가득히 쌓인 낙엽은 누군가에게는 예쁜 풍경이겠지만, 저희에게는 밤샘 작업을 해야 하는 일거리입니다. 그래도 깨끗하고 안전한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지요.”(배순만)

학교 내 청사를 관리하는 방호반 정명환 주무관은 방문객 안내 및 학교 내 각종 행사에서 안내와 질서 유지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본관에서 근무할 때는 모두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출근하는 교직원들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일과가 끝날 때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지요.”(정명환)

청원경찰반 신동구 담당관은 교내 전체를 순찰하며 캠퍼스 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내용을 체크한 뒤 현장을 방문한다. 서울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캠퍼스인 만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도 많았다. “노숙자나 잠상인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 주차 위반을 단속하면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땐 정말 힘이 많이 들지만 서울대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일해왔어요.”(신동구) 세 사람 모두 캠퍼스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40여 년 서울대학교에서 쌓아온 추억들

오랜 시간을 서울대에서 근무한 만큼 이곳에서의 추억도 꽤 많이 쌓였다. 1976년부터 서울대학교와 함께한 신동구 담당관은 젊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깨닫는 것도 많았다고 말한다. “학생들과 나이 차가 꽤 나지만, 함께 대화하면서 사회의 흐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인생을 논하기도 했고요. 제게 캠퍼스는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작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신동구) 건물 곳곳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청소하는 배순만 선임주무관에게 학교는 집과 같은 존재다.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쉬는 날이어도 찾아와서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일 정도다. 학교 곳곳을 꿰뚫고 있는 그는 넓은 캠퍼스 안에서도 자하연 연못을 가장 좋아한다. “연못에 제가 밥을 주며 돌보는 오리 한 쌍이 있습니다. 밥그릇을 두드려 소리를 내면 어디선가 오리들이 나타나 먹이를 맛있게 먹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으면 걱정도 돼요. 학생들이 오리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에 제가 더 기쁘기도 하고요.”(배순만)

서울대에 오래 머물며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바라본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학교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해 서울대학교가 미래를 향해 도약하도록 서로 돕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것. 오늘도 그들은 서울대학교의 밝은 앞날을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

시설관리국 소속으로, 캠퍼스 내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 경비 시스템 운영, 시설물 관리, 교내 교통 관리 등 캠퍼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배순만
선임주무관정명환
주무관신동구
담당관

앱과 함께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며
학교생활이 점차 편리해지고 있다.
아직 학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서울대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각종 앱에서
캠퍼스의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자.

* 별점은 구글플레이 기준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학생들의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업초청간담회, 채용박람회
등 기업과 학생들에게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라이프를 책임지는
스누프라이스
★★★★★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 녹두거리(신림동 고시촌), 봉천역
네 군데로 형성되어 있는 학교 주변의 상권에 대한 완벽 분석
이 이루어져 있다. 이곳들은 온라인상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오프라인 상점도 많아 상권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스누프라이스는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분석을 제공한다. 덕
분에 학생들은 식사 비용의 사소한 지출에서부터 자취방을
구할 때 동네별 시세를 비교하는 일까지 스누프라이스를 통
해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다.



가장 맛있는 식사를 찾아줄
스누밀
★★★★★

관악캠퍼스에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구
내식당과 입점한 외부 업체까지 약 16여 개의 식당이 있다.
운영 시간과 메뉴 모두 제각각이지만 스누밀에서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3일 전후의 식단을 제공하며, 재학생, 교직
원, 외부인으로 구분된 사용자에게 맞는 가격 정보도 함께 제공
한다. 이외에도 위치기반 식당 안내, 즐겨찾기 설정 등을 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
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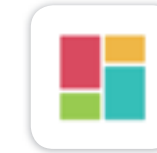
취업의 고마운 동반자
스누셰이크
★★★★★

경력개발센터에서 제작한 앱으로, 재학생과 기업체 간 네트
워크를 형성하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
적인 구직 플랫폼 역할을 한다. 구직자가 원하는 직무와 기업
이 원하는 인재상 매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헤드헌터와 비
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점점 험난해지고 좁아지는 구직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는 앱으로, 기업체는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드넓은 캠퍼스의 안내자
서울대 캠퍼스 맵
★★★★☆

약 419만㎡(126만 평)에 이르는 관악캠퍼스
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본부에서
제작했다. 현 위치를 중심으로 식당, 카페 등의
편의시설 위치를 제공하며 건물별 행사나 이벤
트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길 찾기 서비스는 물론, 외부 방문객을 위한 셸
프 캠퍼스 투어 기능도 갖추고 있다. 덕분에 재
학생은 효율적 동선 계산이 가능하고, 외부 방
문객은 방대한 캠퍼스 내 시설 분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편안한 한 학기를 위한
SNUTT
★★★★☆

웹 개발동아리 '와플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시간표 작성 앱. 매
학기 업데이트되는 수강편람을 탑재하여 시간표 조정 서비스
를 제공한다. 여러 조합으로 시간표를 미리 짜볼 수 있고 강의
계획서도 확인할 수 있어 성공적인 한 학기를 위한 필수 앱으로
손꼽힌다. 과년도 수강편람을 참고할 수 있으며 강의 시간과
더불어 건물 번호와 강의실 호수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아직
시간표가 익숙하지 않은 학기 초에 특히 유용하다.



공부도 스마트하게
SNUL 관정관 좌석 예약
★★★★☆

중앙도서관 관정관의 좌석 및 스터디룸 배정과 예약을 위한 앱이다. 좌석 예
약, 현황 조회, 사용 시간 연장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좌석을 찾아 헤매며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인기가 많다. 군
더더기 없는 가벼운 구성으로 공부를 위해 관정관을 주로 찾는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와플스튜디오

웹과 앱 서비스를 직접
개발 및 운영해 봄으로써
기술을 습득하고 서비스
기획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공학부
동아리. 2012년 SNUTT를
개발했다.



방방곡곡 찾아가는 서울대학교

수년간 관악구청과 함께 관내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펼쳐온 서울대학교.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른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연계를 맺고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초등학생 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파주 창의예술 교육과정

미술대학과 파주시의 협약에 따라 2016년 개원한 파주 창의 예술 교육과정 이 지난 8월 6기 학생을 맞았다. 파주시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약 45명의 학생들이 선발됐다. 선발 기준은 미술을 비롯한 창의적 활동에 관심과 흥미가 높은 학생으로, 관련 분야에서 일정 부분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매 기수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이번의 경우 '내 주변의 세상 탐구'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나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하여 '자신을 둘러싼 익숙한 것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주변 세계의 재발견'을 통해 '나와 세상의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통합적 예술교육을 지향한다. 일반적인 미술 수업에서 벗어나 전문가 특강, 특별전시, 지역 박물관 방문 등의 지역 연계 수업,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시흥시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

SNUComm(스누콤)

SNUComm(스누콤)은 서울대학교 센터기반교육(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의 약자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교육협력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학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사회의 학생, 학부모, 주민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 학습 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출범해 시흥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스누콤의 프로그램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Youth Book Talk Club', '학교 밖 책과 함께 상상 속으로'와 같은 수업은 물론 '어린이 합창단 Sign Sing 투게더', '한마음-한 친구 체육 교실', '천문 아스트로 클럽' 등과 같은 공교육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명품 학부모 교육'도 자녀의 교육 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

지역 지도자 양성

구로구 시민지도자 아카데미

올해 8월, 6기 수강생을 맞이한 서울대-구로구 시민지도자 아카데미는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구로구청과 함께하는 시민지도자 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여 고민할 수 있는 시민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으로 선발된 40명의 구로구민들은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또한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된다.

시민지도자 교육은 16회에 걸쳐 학교 정보교육관과 구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존재의 가치 확인', '적극적인 행동', '삶을 풍부하게', '더불어 살아가게'하는 총 네 갈래의 학습 테마로 이뤄져 있다. 본교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사들의 특강, 워크숍, 역사 탐방, 문화 공연, 모듬별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총 12회 이상 출석 및 8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생애사 수필 제출 시 교육종합연구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한 시민지도자는 구로구청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구로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열정 가득, 모두가 함께 만든 예술의 나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가을,
서울대학교에서는 문화예술의
꽃이 만개했다. 풍부한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예술주간 Art Space@SNU와
가을 축제의 현장을 살펴보자.

1



1 한국-태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두 나라의 음악과 무용 전공
학생들이 함께 마련한 무대

2 국악과 판소리 전공자들의 전통
및 신작 판소리 연주를 들을 수 있었던
예술복합연구동 2층 발코니

3 독문극회 'eS' 학생들이
인문대 인문소극장에서 개최한
독일어 연극 '비더만과 방화범들'

4·5 의류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제37회 의류학과 작품발표회
RUN"A"WAY

6 거대 주사위 던지기, 인간
다트 등 축제 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미니 게임들

7 가을 축제 '진리는 나의 빛'이
한창 진행 중인 학생잔디에서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



3



4



5

6



7

 artspace.snu.ac.kr

교육과 경제적 합리성

최승주 경제학부 교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비약적 경제 성장의 한 열쇠로 공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성공적인 축적을 꼽는다. 이러한 교육의 확대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왔을까? 이와 관련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주체로서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을 선천적으로 부여 받은 것인가 아니면 교육 등을 통해 합리성이 향상될 수 있는가의 논쟁을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왔다. ‘넛지(Nudge)’라 불리는 행태경제학과 심리학의 정책 제언은 개별 경제주체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 향상의 방법은 다루고 있지 않다.

2018년 10월 Science에 게재된 본 연구팀의 연구¹⁾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합리적 의사선택 능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선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실험연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 단체와 협력하여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아프리카 말라위 중고등학교 9~10학년 여학생 2,800여 명을 대상으로 2012~2013년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

한 여아 교육 원조사업을 무작위 통제실험 방식으로 실시했고, 장학 사업 종료 이후 4년 뒤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행동실험 방법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측정했다.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 성과 지표는 눈에 띄게 향상됐고(대조 그룹 학생들에 비해 중퇴율이 감소하고, 국가 시험 성적이 높아졌으며 총 교육연수도 증가함), 경제적 합리성 또한 높게 측정됐다. 본 연구는 교육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처럼 교육이 소득 증가와 건강, 범죄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의사 결정 능력의 향상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건강, 취업, 시장 활동,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최빈국 교육 원조사업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추가적 논거가 될 수 있다.

1) Kim, H. B., S. Choi, B. Kim, and C. Pop-Eleches (2018) “The role of education interventions in improving economic rationality,” Science, 362(6410), 83-86.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효과를
입증한다.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3인

1

1991년부터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에게 수상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올해는 제72주년 개교기념식에 맞추어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수상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가로 신기술 개발에 앞장선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정치·사회적 메

커니즘과 그 횡포에 대한 인간 정신의 대결 관계를 형상화한故 이청준 소설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법제를 갖추는 데 공헌하고 국제 사회에서 법치주의 정착에 헌신한 송상현 명예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권오현 1975년 전기공학과 졸업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반도체 분야의 최대 실적을 이끌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도약에 이바지했다.

“1975년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베리타스 루스 메아(Veritas Lux Mea)’, 즉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신념을 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진리를 찾기 위해 기술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기술을 경영하는 최고 전문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품었던 꿈과 동문, 선배님의 지원이 저의 도전과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인들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에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합니다. 저도 기업 현장에서 서울대인이라는 자부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 모교 서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소감문 中 발췌



故 이청준 선생
1966년 독어독문학과 졸업
2008년 작고
정치·사회적 메커니즘과 그 횡포에 대한 인간 정신의 대결 관계를 형상화한 소설가.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故 이청준 작가의 딸, 이은지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도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설이 무엇인지, 소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 아버지의 삶이 전부 소설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세월을 목격했고 그걸 오늘 여러분께 증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끔은 소설이 뭐라고 저렇게 평생을 바치셨을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가져간 소설이라면, 그 안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아버지의 삶을 자랑스럽다고, 아버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상이 아버지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소설이 서울대학교의 자랑거리로 남게 된다면 저나 어머니도 이제는 아버지를 편안하게 놓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수상자 자녀 이은지, 2018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소감문 中 발췌



송상현 명예 교수
1963년 법과대학 졸업

30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역임하고 소장에 취임해 국제사회에 법치주의를 정착했다.

“제게 서울대학교란 끊임없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창출해준 꿈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법학 분야는 제가 일찍이 모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평화, 인권, 정의, 복지,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규범 과학으로 거듭나 현재에는 통찰력 있고 행동하는 법률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법조 윤리를 지키면서도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법을 창조하고 더 나은 국제 질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능력과 덕목은 모교의 교실에서 배태되고 양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캠퍼스에서 공정, 주체성과 아울러 국제성, 합리주의와 인본주의,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 슬기로운 사색과 아울러 활기찬 행동, 치밀한 계산과 포용성을 기르면서, 체념 대신 분발하고 자학 대신 자존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8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소감문 中 발췌



제72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2

2018년 10월 12일(금) 교수, 직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 중강당에서 제72주년 개교기념식이 개최됐다.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 교육부총장은 “현상 유지의 사고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 없이는 대학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며 서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평화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울대학교의 혁신에 앞장서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 우수 학생 등에게 표창장을,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에게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3

경력개발센터는 2018년 하반기 채용시즌을 맞이해 국내외 기업들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예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화)~5일(수) 대학본부 앞 잔디 광장에서 ‘2018 SNU Job Challenge 서울대학교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채용박람회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후원을 받아 국내외 공·사기업 총 158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기업을 찾고 보다 효과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가 기업에게는 우리 대학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8년 2학기 ‘SPF 장학생’ 선정 4

본교는 10월 1일(월) 개발도상국 우수인재 장학프로그램인 ‘SNU President Fellowship’ 선정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생에게는 학위과정 등록금 전액, 생활비 지원, 한국어 교육, BK 국제관 입사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도국 주요 대학의 교원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됐다.



5 고교생활 가이드북 발간



입학본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원년인 2018학년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해 고교 현장에 배포했다.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공고하게 연계해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고자 했다. 가이드북에서는 서울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라오스 교육부, 라오스봉사단에 감사장 수여 6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지난 7월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라오스 나포마울에 2018 하계 SNU 공헌유량단 라오스봉사단을 파견했다. 농업 인식 개선과 교육 나눔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라오스 교육부에서는 공헌단과 봉사단원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공헌단은 재학생들을 사회의 선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어 적정기술의 적용,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등을 목표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도서관 ‘2018년 제2차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 회의’ 개최 7

중앙도서관은 2018년 9월 19일(수) 관정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대학의 재정난 악화는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전자자원의 구독 축소로 이어져 대학의 연구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산하에 ‘전자정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저널 협상력 강화와 효율적인 학술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가치 있는 나눔의 발자취를 느끼다

캠퍼스 기부 로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위해 한평생 쌓아온
노력의 산물을 기꺼이 기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관악캠퍼스 곳곳을
함께 걸어봅니다.

두산인문관 연강홀 (인문대학 8동)

故 박두병 경성고등상업학교 (구 서울대 상과대학)

두산그룹이 설립하고 기증한 '연강기념관'이 박두병 초대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재건축됐다. 그중
박두병 회장의 호를 따온 1층 연강홀에는 기부의 뜻을 널리
전파하고자 그의 부조를 함께 설치했다. 이외에도 인문대학
5층에는 한국 문학 연구 진흥에 힘쓴 손장순 교수(소설가,
칼럼니스트, 문학비평가)의 전시실도 있다.



신양학술정보관 (공과대학 44-1동, 인문대학 4동, 사회대학 16-1동)

故 정석규 화학공학과 48입

신양학술정보관에는 서울대 기부왕으로 알려진
신양 정석규 명예 이사장을 기리기 위한 부조가
놓여있다. 그는 공대, 인문대, 사회대에 총 3개의
신양학술정보관을 기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난치병
연구기금, 공과대학 공학 학술 시상기금, 기금
교수 초빙 기금 등도 기부했다.

법과대학 (72동)

법학도서관

윤세영 행정학과 56입

법학도서관 1층에 놓인 흉상의
주인공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에 발맞추어 기부해
제3법학관(서암법학관) 개관에
기여한 서암 윤세영 동문이다.
덕분에 이곳은 아시아 최고의
법학 전문 정보센터로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지식의 보고로 활용되고 있다.
2층에는 1983년 국산법학도서관
건립을 위해 사재를 기부한故 국산
김택수 동문의 흉상도 놓여 있다.



학생회관 (63동)

이용희

우수한 인재를 지원해 또 다른 미래의 후원자를
길러낸다는 생각으로 기부한 이용희 태광사
회장의 부조는 학생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장학금 확충이라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한
태광빌딩 건물 운영을 통해 나오는 수익금은
매년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약학대학 (29동, 29-1동)

권영대 약학과 55입

권영대 덕홍상사 회장은 1994년
약학대학 도서관기금 기부를 시작으로
꾸준히 약학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당시에는 이례적이었던
기념 흉상 제작이 이뤄졌으며,
이는 현재까지 약학대학 1층에
놓여 있다. 이외에도 신약개발센터
1층에는 신종제약故 장윤택
회장의 흉상, 가산약학전시관에는
광동제약故 최수부 회장의 부조,
우봉약학전시관에는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의 부조가 놓여 있다.



해동학술관 (32-1동)

김정식 전자공학과 48입

해동학술관 1층에는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기부활동을 벌인 김정식 이사장의
부조가 있다. 대덕전자를 창업해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에 초석을 놓은 그는 2009년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2016년 우리가 닦고
싶은 공대인에 선정되어 공과대학에도 흉상이
세워졌다.



중앙도서관 옥상정원 (62동, 62-1동)

故 주홍집 · 홍계수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도서관 옥상의 명칭은 '판사
주홍집 · 홍계수 옥상정원'이다. 주경숙 동문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부해 지은 것으로, 두 사람을 기리는 부조도
설치됐다. 이외에도 관정관 1층에는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의 흉상이, 본관 4층에는故 조천식 회장과 윤창기
여사 흉상이 놓여 있다.



故 노용희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 창립 멤버로 참여했으며,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개설해 국토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1973년에는 환경대학원을 설립해 우리나라 환경학 분야를 일군 선각자적 역할을 했다. 그의 자녀 노재정 카이스트 교수(좌)와 노재신 튜튼영어 부사장(우)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서울대학교에 유산을 기부했다.

먼 길을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노재정, 노재신
고주 노용희 환경대학원 초대 원장 장학기금 출연자

지방자치의 개척자이자 자연 보호의 선각자로 널리 알려진故 노용희 환경대학원 초대 원장.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보다도 항상 따뜻하고 자상했던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었다.

학문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담다

지난 10월 27일, 환경대학원 5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故 노용희 초대 원장의 유산을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한 자녀 노재정, 노재신 씨가 참석했다. 환경대학원을 설립한故 노용희 원장을 기리며 제작한 부조 제막식을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금전적인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도움을 주셨어요. 복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세운 정주장학회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결성한 지방자치학회에도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셨죠.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유산은 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노재정)

환경대학원을 지원한 이유는 아버지의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 원장은 발전을 거듭하는 미국의 사회를 보면서 세계의 관심이 곧 환경과 건강으로 전이되리라 예측하고 서울대학교에 환경대학원을 세웠지만, 환경학을 독립된 하나의 전공으로서 학

아버지의 삶을 보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떠올라요. 남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자신만의 삶을 사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가르쳐주셨습니다.

술원에 올리지 못해 못내 아쉬워했었다. 이런 안타까움이 전해진 것 인지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는 각 분야의 전문 교수들이 서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환경학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소중한

자리로 치러졌다. “아버지는 환경학의 발전이 더딘 것에 아쉬워하시면서도, 결코 후배들을 다그치지는 않으셨어요. 새롭게 자라는 인재들을 위해 한발 물러서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하신 거겠지요. 이번 행사가 환경대학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이자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노재신) 아버지가 심은 환경학이라는 거목의 뿌리를 후배들이 잊지 않고 잘 가꿔주기를 바랄 뿐이다.

든든한 가장이자 인생의 멘토, 아버지

자녀에게 노 원장은 살갑고 장난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가족의 중심이 되어 주시던 모습으로 남아 있다. 함께 월남한 어머니와 큰 형님을 정성스레 모셨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꼭 장모님 방에 들러 한참을 이야기 나누며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었다. 자녀들에게도 표 내지 않지만 자연스레 애정을 표현하는 분이기도 했다. “어느 날은 외국에 다녀오신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사 오셨어요. 저희가 좋아할 거란 생각이셨겠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며 밤늦게까지 기계를 돌리시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노재신)

가족들에게도, 결혼을 앞둔 후배들에게도 항상 넓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는 노 원장. 그가 법과 지방자치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해 배우면서 인간과 공존하는 자연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모두가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꿈꿨던 아버지의 뜻이 담긴 소중한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이, 아버지가 살아온 삶처럼 세상을 넓고 길게, 그리고 크게 바라보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제가 삶의 기로에 설 때 도움이 될만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노재신) 노 원장이 우리 곁에 남기고 간 혜안과 행동력, 그리고 열정의 모습은 다음 세대를 이끌 어갈 인재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이다.

주변을 밝히는 건강한 에너지, 기부

장학금 기부자와 수혜자 이야기

나눔으로 전파되는 행복은 생활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장학금으로 따스한 기쁨을 주고받고,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얻게 된 동문들이 말하는
기부의 선순환에 대해 들려드립니다.

가족 모두에게 전염된 나눔의 즐거움

김의신 동문 | 의학과 60학번

31년 동안 종신교수로 근무하던 미국 텍사스대학교 MD앤더슨 암센터에서의 은퇴를 결정한 뒤, 딸이 기념으로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제껏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덕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선뜻 10만 달러를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감명을 받았지요. 그런 딸의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도 서울대학교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둘도 명달아 마음을 모아 서울대 석학 교수 초청 기금에 10만 달러를 추가

로 기부하더군요. 딸이 시작한 기부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이어지는 모습에 앞으로 여유만 된다면 더욱 많이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나누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몇 배나 크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6·25를 경험하며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벅찼던 우리 시대에 기부금이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도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기부해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초석이 됩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세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www.snu.or.kr
 1666-2930(MMS)



선한 씨앗이 틔워준 희망찬 미래

변상영 동문 | 의학과 05학번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형과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는 제가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했을 때 기쁨과 함께 학비 걱정이 앞서셨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장학금은 제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교내 장학금과 선배님들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받으며 자랑스러운 아들로써 부지런히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회장을 맡아 청년 슈바이처 상을 받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도 꾸리며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지요. 졸업 이후 작게나마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어린이 병원 등에 매달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형편이 어려운 후배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 작은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통해서 나눌 수 있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청춘을 청춘답게 만들어주는 힘

안소연 학생 | 국사학과 17학번

대학 원서를 쓸 때, 어려운 집안 형편에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어 어머니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쁘게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해 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기타 생활비에도 수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꽤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든든한 마음으로 학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장학금 덕분이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 계획으로 가득했던 학교생활은 그때부터 다채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마음껏 배우고,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거나 연극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지요. 금전적인 어려움은 의식주뿐 아니라 사고의 폭과 경험의 넓이까지도 제한합니다.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저는 청춘의 많은 부분을 돈을 버는 데 써야 했겠지요. 그렇기에 앞으로도 장학 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꾸고, 훌륭한 인재가 마음껏 빛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7 장학금 수기 공모전 응모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행사



간호대학 홈커밍데이,
졸업 30·40·50·6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

지난 10월 11일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서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함께한 졸업 30·40·50·6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가 개최됐다. 1부는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발전기금이 준비한 ‘동승에서 관악으로’ 캠퍼스 스케치 동영상 상영하며 시작됐다. 이어 간호대 최수미 학장의 인사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재단 소개, 그리고 매년 꾸준히 기금을 출연해 준 동문들을 위한 감사장 수여의 시간도 가졌다. 기념촬영 이후 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동문들은 2부 행사로 연건캠퍼스를 방문해 만난 및 재학생과의 만남,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옛 추억을 떠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 동문들을 포함해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한편 간호대학은 매년 10월 졸업 30·40·50·60주년 동문들을 캠퍼스로 초청해 모교 방문 행사를 개최했으며,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기금을 출연한 동문들에게 감사장 및 기념품, 캠퍼스 투어 제공 등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제2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개최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대학신문이 ‘제2회 장학금 수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장학금 수혜를 통한 변화와 여러 에피소드, 기부자를 향한 감사, 장학금 기부 동기 등 장학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감정들과 이야기들을 발굴해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다. 응모 기간이었던 지난 9월 한 달간 동문, 기부자,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등 112명이 참여했다. 수상자는 10월 25일(목) 발전기금과 대학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으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상 5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미주 동문 초청
캠퍼스투어 개최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지난 10월 22일 관악캠퍼스에서 제2회 미주 동문 초청 캠퍼스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모교를 방문한 미주 동문 15여 명이 참석해 가을을 맞이한 관악캠퍼스를 만끽했다. 행사는 호암교수회관에서 시작되어 서울대 홍보대사 출신 학생이 외곽순환 버스 투어, 규장각 전시 관람, 관정관 방문, 오찬, 총동창회 장학빌딩 방문 순으로 안내했다.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미주동창회 동문은 “물라보게 달라진 관악캠퍼스를 후배의 설명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라며 “투어를 준비하고 진행해주시는 발전기금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미주 동문들이 행사에 참여해 모교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전기금은 매년 가을 모교를 방문하는 미주 동문을 대상으로 캠퍼스투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 및 감사패 전달식

2018. 10. 30. (화)

임강원(기계공학과 62)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임강원 장학기금 1억 원 약정

2018. 11. 14. (수)

강완수(SGS 30기) 대아이앤씨 회장
환경대학원 자료실 리모델링 기부 1억 원 출연

기금 출연자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SNU President's Honor Club · 100억 원 이상 출연

정석규 화학공학과 48입	유희진 기계설계학과 78입	이용희 태광사 회장	윤대섭 농공학과 49입	김정식 전자공학과 48입
삼성	관정이중환교육재단	SK	LG	한국전력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화	포스코	웅진	KT
신한금융	영원무역	현대자동차	부영	우리금융
미래국제재단				

50억 원 이상 출연

조천식 정치학과 45입	현대	롯데장학재단	풍산	동진세미켄
태영	IBK기업은행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관악회	금호아시아나	두산
CJ	대림	한진	SPC	

SNU Gold Honor Club · 10억 원 이상 출연

홍성대 수학과 57입	정영호·박양숙 생물학과 47입	이기영 前 의대 교수	김철·이옥자	신창재 의학과 72입
최창영 금속공학과 64입	원재연 경영학과 82입	박영희 수학교육과 54입	손동준 전자공학과 58입	김연혁 히토세코리아 감사
유태웅 토목공학과 50입	서정선 의학과 70입	주종광·허지영 약학대학 60입·화학과 66입	김석수 자원공학과 73입	전은기·김은희
박병준·홍정희 섬유공학과 52입	곽영필 토목공학과 56입	양두석 독어독문학과 69입	손장순 불어불문학과 54입	이순자 불어불문학과 57입
김명희·신정희 기약과 김형찬의 모	박상윤	박완서의 상속인 호원순, 호원경, 호원균	윤전수·이삼락	차상균 전기공학과 76입
백추현	민계식 조선항공학과 61입	곽노섭 수학과 49입	신승일 화학과 57입	윤종용 전자공학과 62입
정덕균 전자공학과 77입	백형익·유근순	강옥채	김정식 건축학과 54입	민선식 경제학과 78입
박정혜	양윤홍 전자공학과 63입	이필남	정혁진 기계설계학과 73입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대우	스펙코·삼익악기	카길에그리퓨리나	SK하이닉스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하나금융지주	현대산업개발	서울대학교경영대학 교육연구재단	동원	플라톤아카데미
동양	KB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대성	송원김영환장학재단
일진	메가스터디교육	형애장학회	한국가스공사	하나제약
현대중공업	녹십자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	용운장학회	생명보험협회
풍림무악	TOYOTA MOTOR CORP.	출판문화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쌍용양회공업	이연제약	환인제약주식회사	신풍제약
서울장학재단	진양제약	현승교육문화재단	NHN	천재교육
한국프뢰벨	신라문화장학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단암장학재단	방일영문화재단
대우인터내셔널	코스맥스	세진에프알에스	농심	무한투자

*금액 순

기금 출연자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SNU Honor Club · 1억 원 이상 출연

대학원 변화사 유가족 (한자영, 박성현, 박성희)	김하석 (화학과 63입) · 김영중 (약학과 64입)	엄영섭 (화학과 66입)	장웅규 (법학과 71입)	거울그룹	민음사	한국교육연구원 이수자일동	한국거래소
故 구영록 교수 유가족	김자자 (서양화과 故 하동철 교수의 부인)	오경민 (경제학과 67입) · 오선희	장재혁 (역사교육과 80입)	건일제약	민호기 교수 유가족	양지농장	한국금융투자협회
故 김인제 故 최성순 가족	김학봉 (한영언어 회화)	오세경 (약학과 61입)	장정훈 (약학대학 65입)	건화엔지니어링	비바패션	앙리트베이직	한국무역협회
故 박진환 교수	김현 (외과대학 60입)	오수익 (기계공학과 63입)	전광영 (전광영어센터 대표)	경기도인재개발원	바이로매드	엑스베제	한국건설진흥
故 이한빈 부총리 가족 (유정혜, 이원석, 이선이)	김형주 (전자계산기공학과 78입)	오승환 (외학과 56입)	전상훈 (외학과 78입)	바이오엔티에이	경남기업	연강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강대희 (외학과 81입)	김희백 (사법대학 학장)	오용호 (행정학과 69입) · 오양호 (법과대학 80입)	전용필 (경영대학 정인근의 모)	경동송천재단	경동송천재단	영림입업	한국복합물류
강산자 (간호학과 59입)	나정환 (화학교육과 54입)	오윤석 (행정학과 61입)	전익환 (지구환경과학부 故 전재규의 부)	경양교육문화재단	법대 39회 동문 일동	오벨	한국산업은행
강광우 (행정학과 53입)	남정현 (건축학과 53입)	오지균 (서양화과 76입)	전해중 (동양사학과 47입)	법대 84학번 동기회	법대 84학번 동기회	오뚜기재단	한국세로주연구재단
고운석 (물리학과 47입)	노명호 (토목공학과 61입)	옥선화 (가정관리과 68입)	전희선 (연세푸른이비인후과 원장)	계수산업	법대 85학번 동기회	오뚜기재단	한국양물산업
고태원 (지구과학교육과 고통현의 부)	노태원 (물리학과 76입)	옥치준 가족 일동	정달천 (고고미술사학과 故 정은임의 부)	교려아연	법대최고지도자과정 10기 일동	오리엔트이엔지	한국갤러리
고정택 (외교학과 62입)	류무중 (중어중문학과 53입)	우두현 (상학과 61입)	정영섭 (인류학과 66입)	골프존	법대최고지도자과정 8기 일동	오리온전기	한국외국인학교
고주 노홍희 (한경대학원 초대원장)	마국철 (공업교육과 68입)	우형규 (영어영문학과 33입)	정영현 (공업화학과 정순옥의 부)	공영토건	법대 82출구캠데이	오성엘에스티	한국자산관리공사
곽성현 (前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마인경 (리학과 56입)	유동훈 (공업화학과 94입) · 소영순	정윤환 (임학과 56입)	과천시애향장학회	법무법인 바른	오스텔플러스란트	한국전파지구국
곽수근 (경영학과 73입)	문학진 (회학과 49입)	유성숙 (고고미술사학과 故 김원웅 교수의 부인)	정인식 (경제학과 58입)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3기 일동	법무법인 세종	우덕재단	한국증권금융
구범진 (동양사학과 87입)	문희성 (전기공학과 53입)	유효선 (외무학과 70입)	정재민 (약학과 77입)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4기 일동	법무법인 율촌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한국지도자육성정책재단
구영배 (자원공학과 85입)	· 박종식 (가정교육과 54입)	윤계섭 (상학과 64입)	정재선 (소비자운동학과 93입)	관훈클럽실명연구기금	법무법인 케이씨엘	유니베라	한국타이어
구인환 (국어교육과 75입)	박대근 (보건대학원 63입)	윤덕우 (경제학과 58입) · 최덕자	정재준 (前 경보복지 부회장)	광동제약	법무법인 태평양	유신	한국투자자산운용
구재서	박명호 (불어불문학과 52입)	윤석규 (웅진그룹 회장)	정종근	광보문고	법무법인 화우	유티씨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증권
권세일 (화학부 권준영의 부)	박민식 (수학과대학 65입)	윤석순 (수의학과 59입)	정종수	구원장학재단	박산장학문화재단	유한재단	한산이씨양도공파씨서공중종
권순익 (물리전문학부 54입)	· 박금옥 (체육교육과 63입)	윤세익 (경제학과 57입) · 김애삼	조정길 (약학대학 64입)	국가정책과정(ACAD) 총동창회 일동	분슬김중환장학재단	유한킴벌리	한샘출판
권영대 (약학과 55입)	박병주 (덕산스테이트 회장)	윤여순	조동성 (경영학과 67입)	국방과학연구소	부경양돈협동조합	윤승조창성문화재단	한수통신
권영덕 (전기공학과 54입)	박봉근 (수의학과 76입)	윤우석 (에너지자원공학과 63입)	조병연	국영지앤엠 G&M	비씨카드	음악대학 피아노발전기금후원회	한샘
권옥현 (전기공학과 62입)	박숙희 (지리학과 60입)	윤홍식 · 최재영	조병직 (법학과 46입)	국제종합물류	사단법인 은율	이치바이오	한일엔파워
금장태 (종교학과 62입)	박승규 (경제학과 87입)	이건우 (기계공학과 74입)	조상익 (EMBA 14입)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사법대학 국어교육과 동문회	이투스교육	한재장학재단
김건식 (법학과 73입)	박영숙 (간호학과 65입)	이경식 (불어불문학과 55입)	조석준 (행정학 57출)	김 · 장 법률사무소	사조산업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해나천연물신약
김경국 (수의학과 86입)	박영준 (전기공학과 71입)	이광철 (지리학과 59입)	조영식 (수의학과 80입)	김영사	삼성공정학재단	인선문화재단	해성문화재단
김경환 (법학과 62입)	박용현 (교육행정학과 53입)	이교일 (기계공학과 60입)	조옥환 (부산교통 대표)	김정문일로에	삼성애버랜드	인촌기념회	해성장학회
김광한 (외교학과 62입)	박용호 (수의학과 74입)	· 박명진 (불어불문학과 65입)	조중수 (건국대학교 교수)	가사미아	삼송장학회	인합스	해대
김광일 (경영학과 84입)	朴廣宇 (가정관리과 82입), 하성배, 박일숙,	이구철 (물리학과 55입)	조한영 (상학과 43입)	나산산업	삼양사	인텐스	현대건설
김규 (정치학과 58입)	박순영, 박노홍	이금기 (약학과 55입)	조형준 (미학과 65입)	남광토건	삼양제닉스	인터파크	현대전자산업
김글순 (간호학과 68입)	박중근 (전기공학과 69입)	이기원 (농생명공학부 교수)	조홍연 (FNP, 식품영양산업 CEO과정 7기)	농협비비안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일동제약	현대차투자증권
김기봉 (기계공학과 63입) · 신경은 (화학과 65입)	박중수 (수의학과 58입)	이기춘 (가정교육과 61입)	차삼균 교수 외 제자 12명	넥스코리아	삼일문화재단	일동후디스	현대카드
김기태 (의학과 58출)	박중호 (영어영문학과 55입)	이내진 (경제학과 55입) · 이홍자 (약학과 63입)	제성기 (원자핵공학과 59입)	노키아터엠씨	삼일회계법인	일산장학회	현대캐피탈
김난도 (소비자운동학부 교수)	박종호 (경제학과 67입)	이동수	제재한 (전기공학부 48입 故 채호석의 자)	농아초희망재단	삼전순악공업	삼전순악공업	현대장학회
김대욱 (조선공학과 76입)	박준 (법학과 73입)	이만택 (의과대학 52입)	천문우 (약학과 61입)	농우바이오	삼한박막진공	현우그린	현대화학
김동길 (화학교육과 57입)	박태고 (화학부 79입)	이명철 (철학과 60입) · 김귀현 (기학과 69입)	최규필 (제약학과 70입)	다이스아성산업	삼호개발	재충공서울대학교총동문회	출판스e파란재단
김동준 · 이유미 (故 최용현의 가족)	박태우 (건축학과 64입)	이문환 (수의학과 66입)	최덕순 (간호학과 59입)	다할넷	삼호모터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효성그룹
김동훈 (화학과 48입) 故 故오영주 교수 가족	박태진 (독어독문학과 80입)	이병준 (경제학과 55입)	최만수 (기계공학과 76입)	대교	삼지상사	전국은행연합회	휴맥스
김두철 (전자공학과 66입)	박찬 (통상학과 69입)	이석 (기계공학과 80입)	최만선 (경제학부 교수)	대동공업	삼지인티너쇼날	정공산업	휴한재단
김만국 (약학과 47입)	배옥자 (성심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이성규 (사학과 65입)	최병오 (AFB, 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과정3기)	대림대학	삼진개발	정민	AMP 63기 일동
김병기 (가나아트센터 화백)	백종철 (농공학과 54입)	이성철 (정치학과 82입)	최스미 (간호학과 76입)	대양 E&C	생활과학대 2012 · 2013 출क्रम 동문희망장학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MP 64기 일동
김병호 (회학과 74입)	법대 48회 졸업생	이순원 (가정교육과 54입)	최애욱 (간호학과 50출)	대영빌	생활과학대 2014 · 2015 출क्रम 동문희망장학금	정수장학회	AMP 65기 일동
김상현 (사법학과 82입)	변대규 (제어계측공학과 79입)	이순자 (마드리드내악단 이순자단장)	최운재 (측산학과 73입)	대우건설	생활과학대 2016 · 2017 출क्रम 동문희망장학금	정현재단	AMP 66기 일동
김상현 (영어영문학과 故 김효정	김상현 (영어영문학과 故 김효정	이순형 (가정관리학과 70입)	최재열 (조소과 최민주의 부)	대우건설공업	생활과학대학동창회 목련회	제14기 최고지도자인문학과과정	AMP 67기 일동
기계항공공학부 김민현의 부)	변주선 (영어교육과 60입)	이신두 (물리학과 76입)	최정욱 (화학공학과 49입)	대우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 ROTC 동문회	저스텍	AMP 68기 일동
김선동 (화학공학과 59입)	서문자 (간호학과 63입)	이영희 (김태원의 모)	최종문 (정치외교학부 교수)	대우재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조비경농정학재단	AMP 69기 일동
김선화(정자) (국악과 60입)	서용선 (미술대학 명예교수)	이예식 (약학과 46입)	최창원 (심리학과 83입)	대우테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12회 동창회	충근당	AMP 70기 일동
김성배 (영어영문학과 63입)	서진 (간호학과 56입)	이홍찬 (농업교육과 63입)	최화형 외 3명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로구장학회	AMP 71기 일동
김성일 (임학과 76입)	설학인 (섬유공학과 53입)	이용환 (전기공학과 73입)	홍원자 (임학과 故용환원의 부인)	대한사료	서울대합창단 동문회	중화장학회	AMP 72기 일동
김수이 (경제학부 92입)	성낙인 (제26대 총장)	이우영 (법과대학 94입)	하영구 (무역학과 72입)	대한수의사회	서울미소엔지	좋은책신사고	AMP 73기 일동
김수호 (금속공학과 70입) · 박경희 (간호학과 71입)	손경식 (법학과 57입)	이원영 (AMP 6기)	한규범 (AMP 42기)	대한유학	서울상대향상장학회	중앙백신연구소	AMP 74기 일동
김신원 (응용화학 64입)	손원준 (경영학과 96입) · 송은빈 (심리학과 99입)	이윤경 (간호학과 65입)	한규환 (기계공학과 68입)	대한통운	석원산업	지도자육성재단	AMP 75기 일동
김양곤 (IFP, 미래지도자인문학과과정 2기)	손주은 (서양사학과 81입)	이은방 (약학과 55입)	한기준 (의학과 52입)	더블유에이피파운데이션	선농문화포럼	지식노마드	AMP 76기 일동
김연택 (경제학과 故 김태성 교수의 부)	손창호 (사상학과 71입)	이은옥 (간호학과 59입)	한동현 (경영학과 85입)	돈암장학회	선남시장학회	진생사이언스	AMP 77기 일동
김연호 (화학공학과 71입)	송두영 (GLP, 글로벌리더십과정 24기)	이익찬(경영학과 86입) · 이병서(경영학과 66입)	한상복 (사회학과 56입)	동방	선원장학재단	참촌	AMP 78기 일동
김영경 (기계공학과 52입) · 김현순	송명철 (전기공학과 62입)	이장우 (제24대 총장)	한영우 (인문대학 명예교수)	동방상호신용금고	성목문화재단	창강재단	ASSET PLUS투자자문
김진규 (치위학과 71입)	송미자 (간호학과 70입)	이재술 (원자핵공학과 59입)	한옥희 (화학과 79입)	세무법인 조이	세무법인 조이	창진영농조합법인	E1
김영석 (3 Plus Logistics 회장)	송상용 (화학과 55입)	이정섭	한창희 (행정학과 61입) · 김재혜 (법학과 61입)	동부문화재단	세아창원특수강	천만장학회	Eyagi(아이기) CAFE
김영수 (법학과 67입)	송인철 (법학과 59입)	이정섭 (종교학과 04입)	허성도 (중어중문학과 68입)	동서식품	세진에프알에스	천수기업	GM
김영숙 (기학과 48입)	송인철 (SPARC 14기)	이종덕 (물리학과 62입)	허영민 (SPC그룹 회장)	동아건설산업	송우재단	천연물과화학연구소 교수 일동	Goldman Sachs
김영식 (불어불문학과 故 오현우 교수의 부인)	송학민 (법학과 59입)	이종용 (경제학과 56입)	현기순 (가정교육과 46입)	동아제약	송파재단	천원장학회	KDB대우증권
김영일	신수정 (기학과 59입)	이지형 (법과대학 85입)	현재선 (농학과 44입) · 주승기	동양강철	수경출판사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KEILCO(KEPCO ILJAN CORPORATION)
김영복 (농업교육과 김태정의 부)	신영길 (계산통계학과 78입)	이찬승 (수학교육과 69입)	현정오 (농생물학과 66입)	동월문화재단	수석문화재단	최고산업전략과정	KRX국민행복재단
김용재 (의과대학 60입)	신영주 (이산전 대표)	이창득 (국어교육과 71입)	현태환 (화학과 83입)	동화산업장학재단	수임장학문화재단	최고지도자인문학과과정(AFP)	KT브투지증권
김용철 (치위학과 55입)	신옥철 (부산공간대학 대표)	이창주 (경영학과 74입)	홍경자 (간호학과 62입)	동화약품	수의과대학 교수일동	최고지도자인문학과과정(AFP)	LG연암문화재단
김윤종 (약학과 64입)	신익현 (임학과 79입)	이창화 (국어국문학과 64입)	홍계수 마리아 할머니 (법학과 72입 주경숙 동문의 학부 모)	두울장학재단	스키부 동문회 일동	· 미래지도자인문학과과정(IFP)	LG유플러스
김의신 (의학과 60입)	신정택 (최고경영자과정 48기)	이창희 (농생물학과 73입)	홍길표 (컴퓨터공학부 홍지영의 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의료리이센테크	최혁영 장학회	NCSOFT
김의영 (경제학과 47입)	신혜순 (가정학과 47입)	이천한 (영어영문학과 故 이상태의 부)	이천한 (영어영문학과 故 이상태의 부)	로지스그룹	케이 씨, 세	케이 씨, 세	NXC
김인준 (경제학과 67입)	신희영 · 신승연 (故 신희영 교수의 가족)	이철승 (법학과 78입)	이철승 (법학과 78입)	롯데관광	신양머그	코오롱	OB맥주
김정기 (약학대학 69입)	신희영 (물리교육과 49입)	이철영 (SPARC 17기)	홍성관 (사회사업학과 63입)	롯데쇼핑	신익아파트개발연구센터	크로엔리서치	OK 배 · 정장학재단
김정희 (간호학과 52입)	신희택 (법학과 71입)	이평우 (불어불문학과 48입) · 이예은	홍예보 (치의학과 65입)	리더스코스메틱	신한장학재단	트러스톤자산운용	Qualcomm
김종일 (제어계측공학과 79입)	심소일 (상학과 49입)	이현수 (농학과 60입)	홍정희 (회학과 65입)	메트바이오테크	신홍	특수건설	SECMA
김진수 (화학부 83입)	심재성 (前 정보산업 자문위원)	이현주 (경제학과 48입)	홍지준 (화학교육과 74입)	메가스터디교육	심명문화재단	패션그룹형지	SIMPAC ANC
김진환	심창구 (제약학과 67입)	이형도 (화학공학과 61입)	황귀례 (제약학과 故 국채호 교수의 부인)	메디슨	선택	포니정학학재단	SK C&C
김진희 (약학대학 55입)	안상근 (경제학부 91입)	이형주 (농학과 66입)	황재홍 (치의학과 90입)	명진빌	아모레퍼시픽	포휴먼	SKU 프리시전
김천홍	안영철 (前 현대소프트 고문)	이홍표 (외과대학 58입)	히로니카 헤이스케 (하버드대 명예교수)	명진빌	아산사회복지재단	플루윈	S-Oil
김철수 (법과대학 52입)	안인희 (법과대학 민경훈의 모)	임길진 교수 유가족	Eduard J. Stadelmann (前 미네소타대학 교수)	무림피앤피	안성농장	프리미어파트너스	SPARC 15 · 16 · 17 · 18기 일동
김철호 (외교학과 70입)	안창영 (AMP 68기)	임동진 (법학과 62입)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미래에셋	알머스	피에스케이	YBM
김춘길 (화학생활공학부 58입)	양윤근 (전자공학과 79입)	임현진 (사회학과 67입)	Peter S. Kim (MIT 교수)	미래와도전	알앤엘바이오	하이에코리아	
김태우 (자원공학과 70입) · 양천식	양천식	장세권 (농공학과 70입)	Stanley Choy	미래의동반자재단	에드미션	한국PDA	
김택수 (법학과 48입)	염병윤 (외교학과 60입)	장순영	강스탬바이오텍	엘트벨민초장학재단	엘트벨민초장학재단	한국간연구재단	

*가나다 순

2018.6.1. ~ 2018.8.31.	약정	출연	이재진 (컴퓨터공학부 교수)	10,000,000	10,000,000	보고레아첨대디자인 (박기용 대표)	3,000,000	3,000,000	구본철 (물리-천문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단위: 원	이학진 (경제학과 93입)	10,000,000	10,000,000	송원중 (경제학과 83입)	3,000,000	3,000,000	권기대 (FNP-식품영양산업CEO과정 14입)	1,000,000	1,000,000
			장동성 (경제학부 교수)	10,000,000	10,000,000	이원희제 (순회제 대표이사)	3,000,000	3,000,000	권선우 (경제학과 71입)	1,000,000	1,000,000
			정순하 (정신과)	2,000,000	2,000,000	에이케이아이앤씨 (김장기 대표이사)	3,000,000	3,000,000	김태승 (경제학과 81입)	1,000,000	1,000,000
			정문찬 (제23대 총장)	10,000,000	10,000,000	엘엑스씨 (김정주 회장)	3,000,000	3,000,000	김병철 (경제학과 85입)	1,000,000	1,000,000
			조경일 (약학대학 64입)	10,000,000	10,000,000	오철원 (농림교육과 77입)	3,000,000	3,000,000	김소연 (경제학부 96입)	1,000,000	1,000,000
우리은행 (순태승 은행장)	3,000,000,000		조동준 (정치외교학부 교수)	10,000,000	10,000,000	원영록 (언론조보학과 조민기 동문의 모)	3,000,000	3,000,000	김승기 (국제경제학과 69입)	1,000,000	1,000,000
미래에셋대우 (최환만 수석부회장)	2,000,000,000	200,000,000	코라이크레이티브 (김종택 대표이사)	10,000,000	10,000,000	외류학과 94학번 일동	3,000,000	3,000,000	김병생 (경제학과 81입)	1,000,000	1,000,000
김석수 (자활공학과 73입)	1,048,000,000	1,048,000,000	파인디자인 (김용호 대표이사)	10,000,000	10,000,000	이구철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3,000,000	3,000,000	김용민 (경제학과 70입)	1,000,000	1,000,000
Lloyds Register Foundation	860,000,000		헤안식품(네네치킨) (한철호 대표)	10,000,000	10,000,000	이병준 (FNP-식품영양산업CEO과정 37기)	3,000,000	3,000,000	김홍하 (국제경제학과 84입)	1,000,000	1,000,000
한국사회복지자료원 (이범 이사장)		400,000,000	티에스문화재단 (박선영 이사장)	9,500,000	9,500,000	이선호 (경제학과 84입)	3,000,000	3,000,000	김용태 (물리-천문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에스케이건설 (조기행 부회장-인재현 사장)	300,000,000	100,000,000	김경환 (외교학과 62입)		9,000,000	이명섭 (국제학과 교수)		3,000,000	김척교 (경제학과 54입)	1,000,000	1,000,000
현대저 정몽구 재단 (신수정 이사장)	208,219,000	208,219,000	충로구장학회 (최현종 이사장)	8,916,000	8,916,000	이창익 (약학대학 교수)		3,000,000	김종희 (경제학과 65입)	1,000,000	1,000,000
최창문 (정치외교학부 교수)		200,000,000	삼육문화재단 (이범일 이사장)	8,675,000	8,675,000	전병홍 (정책학과 전상우 동문의 부)		3,000,000	김태승 (경제학과 81입)	1,000,000	1,000,000
삼성복지재단 (이수빈 이사장)	156,987,500	156,987,500	인촌기념회 (이윤호 이사장)	8,438,000	8,438,000	정지희		3,000,000	김태도 (경제학과 81입)	1,000,000	1,000,000
네이버 (한상수 대표이사)		150,000,000	한솔 (이영덕 대표이사)		8,000,000	조영택 (경제학과 79입)		3,000,000	김해경 (FNP-식품영양산업CEO과정 77기)	1,000,000	1,000,000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박현주 회장)	136,000,000	136,000,000	한전전력공사 (조환익 사장)	7,826,000	7,826,000	최성화 (생명과학부 교수)		3,000,000	나길동 (경제학과 61입)	1,000,000	1,000,000
송원김영환장학재단 (김해원 이사장)	120,000,000	120,000,000	아카넷 (김정호 사장)	7,800,000	7,800,000	학현사 (박세원 대표)	3,000,000	3,000,000	나소정 (경제학부 02입)	1,000,000	1,000,000
한솔교육문화재단 (김정일 이사장)	104,000,000	104,000,000	김성에 (AFP-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6기)		7,500,000	한국승신업연합회 (성기철 회장)	3,000,000	3,000,000	노택선 (경제학과 79입)		1,000,000
고윤석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100,000,000	100,000,000	미래의동반자재단 (Jeffrey D. Jones 이사장)	7,480,000	7,480,000	홍이서 (무역학과 75입)	3,000,000	3,000,000	누리모 (총혜숙 대표)	1,000,000	1,000,000
김수이 (경제학부 92입)	100,000,000	100,000,000	협성문화재단 (박국기 이사장)	6,950,000	6,950,000	DB김조근문화재단 (강경식 이사장)	2,998,000	2,998,000	롯데네슬레코리아 서울지점 (강성현 대표)	1,000,000	1,000,000
조흥연 (FNP-식품영양산업 CEO과정 77기)		100,000,000	형남전남지학재단 (이정희 이사장)	6,500,000	6,500,000	KT그로윅광나눔재단 (전인성 이사장)	2,998,000	2,998,000	유용민 (경제학과 86입)	1,000,000	1,000,000
홍상관 (사회사업학과 63입)	100,000,000	40,000,000	칸전 (박태국 대표)	6,290,000	6,290,000	금곡장학회 (이수상 이사장)	2,998,000	2,998,000	류준호 (경제학과 79입)	1,000,000	1,000,000
형애장학회 (최효중 이사장)	95,218,500	95,218,500	프로메테우스 (신광호 대표이사)	6,278,000	6,278,000	고봉선 (경영학과 교수)		2,860,500	문순영 (경제학과 94입)	1,000,000	1,000,000
세미글로벌즈 (강성희 대표)	93,000,000	93,000,000	이광우 (경제학과 교수)	6,049,980	6,049,980	한도래과대학친목회	2,660,500	2,660,500	박광선 (물리-천문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임대관리기술문화재단 (최재규 이사장)	90,000,000	90,000,000	미라민인공지능센터 (윤승섭 이사장)	6,014,000	6,014,000	황금철 (생활과학대학 학장)	2,600,000	2,600,000	박동선 (경제학과 87입)	1,000,000	1,00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최승조 이사장)	78,853,000	78,853,000	성동구청	6,000,000	6,000,000	고화정학회 (배병만 이사장)	2,500,000	2,500,000	박재준 (경제학과 60입)	1,000,000	1,000,000
세진에프알엑스 (라쿠치나 서울대점) (이승훈 대표이사)		57,032,000	한신경협총장학회 (한익성 이사장)	6,000,000	6,000,000	남강장학회 (오규섭 이사장)	2,500,000	2,500,000	박진희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0,000	1,000,000
롯데장학재단 (신경자 이사장)	57,032,000	57,032,000	문암장학회 (이윤복 이사장)	5,996,000	5,996,000	예상구 (의학과 교수)	2,500,000	2,500,000	박종길 (경제학부 86입)	1,000,000	1,000,000
방일영문화재단 (조연홍 이사장)	56,403,000	56,403,000	조비경농장학재단 (이병만 이사장)	5,950,000	5,950,000	이광삼 (경제학부 교수)	2,500,000	2,500,000	박진수 (경영학과 교수)		1,000,000
영일무역 (성기학 대표이사 회장)	53,000,000	53,000,000	바이엘코리아 (임그리드복셀 대표)	5,817,000	5,817,000	한승장학회 (이재영 이사장)	2,500,000	2,500,000	박창진 (보건대학원 70입)	1,000,000	1,000,000
대림수업장학문화재단 (김의희 이사장)	52,358,000	52,358,000	여운선 (경제학과 65)	5,800,000	5,800,000	임종장학재단 (송윤영 이사장)	2,442,000	2,442,000	박태호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1,000,000	1,000,000
미래국제재단 (김선동 이사장)		52,000,000	안산인재육성재단	5,776,500	5,776,500	제봉민병육장학재단	2,442,000	2,442,000	박원주 (경제학과 54입)	1,000,000	1,000,000
전민장학회 (윤은기 이사장)	50,579,000	50,579,000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	5,608,500	5,608,500	정운오 (경영학과 교수)		2,340,000	박광문 (사부공역월도 CEO(부사장))	1,000,000	1,000,000
정수장학회 (김삼현 이사장)	50,072,000	50,072,000	노라미르(이) (최승일 대표이사)	5,487,216	5,410,719	황동성 (재료공학부 교수)		2,300,000	배종현 (경제학과 59입)	1,000,000	1,000,000
김정용 (일성화학 대표이사)	50,000,000	50,000,000	세지오	5,400,000	5,400,000	과연인 (경제학과 93입)	2,000,000	2,000,000	배종섭 (경제학과 58입)	1,000,000	1,000,000
최지호지식인문학과장 AFP227기 (이은 대표)	50,000,000	50,000,000	이유리 (외류학과 교수)	5,400,000	5,400,000	김대희 (경제학과 81입)	2,000,000	2,000,000	백대유		1,000,000
안산사회복지재단 (정몽준 이사장)	43,966,000	43,966,000	김재일 (경영학과 교수)	5,308,000	5,308,000	김병환 (수리과학부 교수)	2,000,000	2,000,000	성대영	1,000,000	1,000,000
안인희 (법과대학 민경훈 동문의 모)	40,000,000	40,000,000	기승재단 (윤도준 이사장)	5,000,000	5,000,000	김정호 (경제학과 84입)	2,000,000	2,000,000	서병무 (치의학과 교수)	1,000,000	1,000,000
한화 (김연철 대표이사)	39,925,048	39,925,048	국기호 (경영학과 79입)	5,000,000	5,000,000	김광호 (경제학과 84입)	2,000,000	2,000,000	서병환 (무역학과 80입)	1,000,000	1,000,000
KEILCO(KEPCO ILJAN CORPORATION)		38,080,000	관영체 (식품영양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박재범 (경제학과 54입)	2,000,000	2,000,000	설승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000,000
BMW korea (장예연 Technology scout)		36,750,000	김달식 (법문학부 53입)	5,000,000	5,000,000	박형수 (경제학과 86입)	2,000,000	2,000,000	성상제 (대학행정교육원 선임연구원)	1,000,000	1,000,000
청합장학회 (여상길 회장)	36,750,000	36,750,000	김다중 (경제학과 66입)	5,000,000	5,000,000	범석학술장학재단 (박준숙 이사장)	2,000,000	2,000,000	소병문 (경제학과 81입)	1,000,000	1,000,000
유한재단 (이필성 이사장)	32,739,000	32,739,000	김소용 (경제학과 79입)	5,000,000	5,000,000	산학협동재단 (김진도 이사장)	2,000,000	2,000,000	송준원 (무역학과 81입)	1,000,000	1,000,000
연강재단 (박용현 이사장)	30,074,000	30,074,000	김광 (경제학과 84입)	5,000,000	5,000,000	성기인 (제26대 총장)		2,000,000	송동섭 (경제학과 81입)	1,000,000	1,000,000
강광문 (생물과학부 교수)	30,000,000	30,000,000	김현희 (국립경제학과 91입)	5,000,000	5,000,000	연강장학회 (남국 화장)	2,000,000	2,000,000	신영민 (경제학부 81학번)	1,000,000	1,000,000
임동진 (경제학부 11입)	30,000,000	30,000,000	김문은 (치과대학 82입)	5,000,000	5,000,000	옥우석 (경제학과 86입)	2,000,000	2,000,000	신상섭 (경제학부 01입)	1,000,000	1,000,000
장영교 (GLP 글로벌리더십과정 34기)	30,000,000		김진현 (간호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우리민서로들기운동 (임학규 대표)	2,000,000	2,000,000	신순자 (약학대학 53입)	1,000,000	1,000,000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		30,000,000	김재성 (경제학과 67입)	5,000,000	5,000,000	유승민 (경제학과 76입)	2,000,000	2,000,000	아트포트폴리코 (김성은 대표이사)	1,000,000	1,000,000
한국SMC공업 (선석문 대표이사)		30,000,000	방호정 (국어교육과 55입)	5,000,000	5,000,000	유재상 (무역학과 80입)	2,000,000	2,000,000	안상훈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0,000	1,000,000
엘트벨만초창학재단 (김박 이사장)	29,323,000	29,323,000	서울에코엔비 (이덕근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이준 (경제학부 80입)	2,000,000	2,000,000	양기서 (경제학과 81입)	1,000,000	1,000,000
단일장학재단 (이봉서 이사장)	27,550,000	27,550,000	사정희 (무역학과 81입)	5,000,000	5,000,000	이태룡 (경제학과 81입)	2,000,000	2,000,000	예교코리아 (고상은 대표)	1,000,000	1,000,000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	27,000,000	27,000,000	임영섭 (무역학과 81입)	5,000,000	5,000,000	이태희 (경제학부 04입)	2,000,000	2,000,000	황윤중 (경제학부 81입)	1,000,000	1,000,000
오뚜기재단 (함영준 이사장)	25,709,000	25,709,000	오스텝일플린트 (임태근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전갑성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2,000,000	2,000,000	필리장학문화재단 (남기영 이사장)	1,000,000	1,000,000
우희중 (수의과학 학장)	25,000,000	25,000,000	오영근 (약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장동원 (경제학과 81입)	2,000,000	2,000,000	유재희 (월메이징시니어산업 1기)		1,000,000
한재장학재단 (이강오 이사장)	24,416,000	24,416,000	오창익 (기계공학과 71입)	5,000,000	5,000,000	정해도 (약학과 76입)	2,000,000	2,000,000	유재봉 (무역학과 81입)	1,000,000	1,000,000
김상현 (간호학과 교수)	20,700,000	20,700,000	홍기현 (식품영양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조인환 (무역학과 81입)	2,000,000	2,000,000	유지영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0,000	1,000,000
윤승조장학문화재단 (전병일 이사장)	20,483,000	20,483,000	이동규 (경제학과 74입)	5,000,000	5,000,000	최현석 (경제학부 96입)	2,000,000	2,000,000	유재원 (국어국문학과 동문)	1,000,000	1,000,000
광동제약 (최승원 대표이사 부회장)	20,000,000	20,000,000	이일교 (FNP-식품영양산업 CEO과정 47기)	5,000,000	5,000,000	권사범(한양장학재단 (이준영 이사장)	2,000,000	2,000,000	윤영진 (경제학과 72입)	1,000,000	1,000,000
서창생 (경제학과 86입)	20,000,000	20,000,000	이정은 (식품영양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표인수 (경제학과 77입)	2,000,000	2,000,000	윤영진 (약학대학 53입)	1,000,000	1,000,000
주식회사 평진팩 (관기진 대표이사)	20,000,000	20,000,000	임금태 화학과 동문 기숙	5,000,000	5,000,000	호신서비스 (남정우 회장)	2,000,000	2,000,000	이기욱	1,000,000	1,000,000
한화디펜스 (이성수 대표이사)	20,000,000	20,000,000	장안유업 (진홍두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한국철소정보 (채종준 대표이사)	1,830,374	1,830,374	이동준 (식품영양산업CEO과정 17입)	1,000,000	1,000,000
한화생명보험 (차남규 대표이사 사장)	20,000,000	20,000,000	전승철 (서울의국한계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윤용혁 (독어교육과 60입)	1,800,000	1,800,000	이민호 (경제학부 84입)	1,000,000	1,000,000
한화손해보험 (박윤식 대표이사)	20,000,000	20,000,000	조이푸드 (김영식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최혁 (경영학과 교수)		1,800,000	이병태 (무역학과 81입)	1,000,000	1,000,000
한화에너지 (류두형 대표이사)	20,000,000	20,000,000	최난균 (중어중문학과 67입)	5,000,000	5,000,000	강성경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5,240	1,755,240	이석무 (경제학과 81입)	1,000,000	1,000,000
한화자산운용 (김용현 대표이사)	20,000,000	20,000,000	최병문 (경제학과 76입)	5,000,000	3,000,000	이소리김다희 (문지현 대표)	1,690,000	1,690,000	이종훈 (무역학과 81입)	1,000,000	1,000,000
한화생명손해보험 (이성식 대표이사)	20,000,000	20,000,000	최우정 (외국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관남길 (고령대 동문의 부)	1,610,000		이재홍 (경제학과 63입)	1,000,000	1,000,000
한화케미칼 (김창희 대표이사)	20,000,000	20,000,000	테리나스코리아	5,000,000	5,000,000	박정호 (남부학술심평정관)		1,650,000	이승환 (농생명공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한화투자증권 (여승주 대표이사)	20,000,000	20,000,000	한성터앤이 (황인성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구인희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5,240	1,605,240	이재율 (경제학과 72입)	1,000,000	1,000,000
화안생 (우희명 회장)	20,000,000	20,000,000	홍성욱 (생명과학부 교수)	5,000,000		김해란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5,240	1,605,240	이종운 (경제학과 64입)	1,000,000	
인촌 (이명결 이사장)	19,851,000	19,851,000	황성주 (약학대학 76입)	5,000,000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5,240	1,605,240	이종철 (경제학과 86입)	1,000,000	
해성문화재단 (단체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기부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병원 예우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기부자분들께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주선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후원인 라운지에 상주하는 전담직원이 진료 예약 및 의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에서
검진하신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하시면 서울대학교병원 본원과 즉각적으로
연계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예우 서비스 내용



예약 대행 서비스

진료 및 입원 예약 대행



의전 서비스

진료·입원 이용 편의를 위해
전담 직원이 직접 안내



종합건강검진 주선 서비스

발전기금 예우담당자가 강남센터
간호사와 검진상담 연계



기부자 클럽	진료예약	의전 서비스	종합건강검진 주선
SNU President's Honor Club (50억 원 이상)	평생	평생	평생
SNU Gold Honor Club (10억 원 이상)	평생	10년	평생
SNU Honor Club (1억 원 이상)	기한	기한	기한

• 문의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l 02-880-8004

E-mail snuf@snu.ac.kr

추
억
의

캠
퍼
스

1956.10.15.



개교 이후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피란했던 여파로 자연스레 단과 대학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매년 10월 열리던 개교기념식이었다.
특히 개교 10주년에는 기념식을 비롯해 웅변대회, 전시회, 학술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새로운 미래를 밝히다

공조하는 창작자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전후 우리나라 소설 형태의
변화에 크게 기여한
故 최인훈 작가.
격동의 시대에서
새로운 문학의 길을 연
그의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국립 서울대학교

T. 02-880-9071
F. 02-876-5480
www.snu.ac.kr